

# '혁신행정 · 현장행정 · 공직기강' 강조

김관영 도지사, 취임 후 첫 간부회의 개최... 국가예산확보 · 경제 살리기 등 주요현안 추진 · 대응 철저 당부

민선8기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가 7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는 지난 4일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실국별 현장행정 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도민과 소통할 것을 더욱 더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채된 전북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적 전환의 요구를 전북의 기회로 전변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김관영 도장에 부여된 제1의 사명은 경제와 민생살리기 이므로, 실국장은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이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원칙에 따라 도민 결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름값 등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현장 도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혁신적 행정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 "다음 실국별 업무보고 시 각 과별 소임에 따라 타시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북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기에 공직기강도 강조했다. "도민을 위하다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실수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실국장의 주요업무 보고시 대안 마련도 지시했다.

도내 노후화된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산업부 공모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

하므로,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 확보, 대통령 공약 제회 추경 제12대 개인 후 첫 의회 업무보고 등 도정 주요 현안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 매주 월요일 개최했던 간부회의가 민선8기에는 매주 금요일 2시에 시작하여 역동적이고 일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운영된다.

다만 이번 간부회의는 8일 시도지사 간담회 일정으로 하루 앞당겨 진행됐다. /김경수 기자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사업내용 추진일정, 타 지역 문제 해결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시할 도민 의견을 7월 18일~8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RE-100, 지방소멸대응, 기후위기, 청년문제 등 참여 분야에도 제한은 없다. 제안 참여자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정심사를 통해 의제가 선정되면 해결방안 모색, 문제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병소에 지역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고 정책 제언도를 높일 수 있다"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느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8월에는 전북 섬에서 즐기세요"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 ... 김수미 · 박명수 · 썬앙 등 위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김수미와 박명수, 유명 유튜버 썬앙(본명 박정원)과 리랑(본명 김이랑) 등 총 4명을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군산에서 개최된다.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 4명은 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방송인 김수미씨는 군산 특산물인 방송인 김수미와 박명수, 유명 유튜버 썬앙(본명 박정원)과 리랑(본명 김이랑) 등 총 4명을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유튜버 방명수를 운영 중인 박명수 씨도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DJ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먹방 유튜버 썬앙은 홍보 영상 촬영과 섬의 매력과 먹거리를 소개하는 등 섬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선다.

아울러 캠핑 유튜버 리랑은 섬에서 캠핑을 즐기며 섬의 관광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설명회 개최

민간-지자체-공공기관 협력해 문제 해결 도모... 올해 첫 추진 · 전북소통대로 통해 도민 의견 접수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그 동안의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전북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설명회를 7일(목)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해 18년 대구 등에서 시작했으며 올해는 13개 시도에서 추진한다.

전북도는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해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협업체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전주대(지역혁신센터)에서 주관했으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유튜브 채널을 열어 도민, 민간단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4시군 등 40개 기관 100여 명이 함께 했다.

100여 명이 함께 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병소에 지역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고 정책 제언도를 높일 수 있다"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느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제27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내달 24일까지 접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8일부터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도민을 찾아 수여하는 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지향하는 상이다.

지금까지 모두 16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에는 각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을 흘

리고 큰 성과를 낸 3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추천 대상은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에서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다. 도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 및 20명 이상의 전북도민이 연서한 경우 도민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 자치행정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9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농촌협약 액션플랜 수립 · 혁신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향후 민관 협력해 전북형 농촌협약 액션플랜 수립해 나갈 것" 농촌협약 전담공무원 ·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등 130여명 참여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주관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병철)가 주최한 '농촌협약 액션플랜 수립 및 혁신과제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농촌협약 정책토론회는 농촌협약 전담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현장활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 주제는 지역특색에 맞는 비전

을 수립하고, 농촌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들을 진단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을 위함이었다.

토론회는 송해안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해 전북대 손재권 교수가 좌장을 맡아 3년간의 전북도의 농촌협약 추진성과를 점검하며 시작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백금철 차장은 "농촌협약 취지

와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 · 전문가 · 용역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제2 주제 발표자인 군장대학교 황만길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지역리더의 역할과 과제"를 강조했다.

또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참석자들이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농촌협약 거버넌스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 주체별 역할에 따른 명확한 액션플랜 수립방안과 농촌협약제도의 취지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지형 도 농촌협력과장은 "우리도가 농촌협약을 가장 우수하게 추진한다고 중앙에서 평가받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민관이 더욱 협력하여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형 농촌협약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촌협약 정책토론회는 유튜브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계정으로 생중계 됐고,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 도, 임업직불금 말일까지 신청 · 접수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금을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 기간 내에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는 6월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경영체(임업인 및 임업 법인)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자격요건 검증, 실경차 확인 등 인증 기준 이행점검을 마친 적격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배민복합점
  - 한스스피치 · 3년 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4육원 및 기관, 단지 특강 및 강사
  - KBS 1TV 아침나눔, MBC 1TV, 11TV, 11TV 출연 및 강연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정로복사 · 심리상담사
  - 개시 "665 스피치케어센터", "나쁜 배운, 밥, 밥"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계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문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예방지능이회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